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2016년도 캐나다 하계 어학연수로 밴쿠버에 위치한 랑가라 컬리지로 가게 되었다. 학교의 규모는 본교의 크기이지만 언덕이 없고 수평으로 넓어 등교하기 편했다.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실제 학교 재학생들은 많이 없었지만 랑가라 컬리지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의 수는 100명 가까이 되었다. 학교의 편의시설은 식사, 휴식, 독서 등 갖가지 활동을 하기에 편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랑가라 컬리지는 한국의 지하철과 개념이 비슷한 스카이 트레인과도 가까이 있어 주변 교통이 아주 편리했다.
수업	수업의 내용은 주로 캐나다의 문화, 실용영어(이메일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며 팀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둘러앉아 수업하며 참여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업을 듣기 전 듣기 테스트로 분반을 하며 성취도별로 5개 반으로 나뉜다. 5반 선생님은 Taby라는 10여년 이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베테랑이셨다.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수업을 열심히 해주셨고 학우들도 그것에 감탄하여 열심히 따라 주었다.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틀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간식을 같이 먹기도 하며 스트레스도 풀었다. 내 생애 만나본 원어민 선생님 중에 가장 이상적인 수업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수업 내용에 만족했고 같은 반 학생들도 정말 환상적인 친구들이었다.
Activity	휘슬러 마운틴, 밴쿠버 디스커버리(DISCOVERY), 카약킹 등 모두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 다만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꼭 챙겨야한다. 밴쿠버는 습하지 않지만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제가 필요하다. 모든 액티비티는 추가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밴쿠버의 날씨는 햇빛이 강하지만 습하지가 않고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다. 따라서 바람막이 같은 간단한 외투 몇 벌과 선 크림, 선글라스 등의 자외선 차단 용품을 가져가야 한다. 캐나다에 머문 21일 동안 비는 딱 한 번 왔었다. 우산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안전	밤 10시 이후로 혼자 늦게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된다. 그리고 다운타운에서도 차이나타운은 여자라면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낫다. 아무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한국에 있는 것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한다.
숙소	홈스테이에서 하루 3끼를 챙겨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경우가 많다. 홈스테이 어머니가 친엄마처럼 잘 대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기본 예절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욕조에서 바닥에 물이 튀기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V ) 외부식당 ( V ) 기타( )  홈스테이에서 싸주신 음식도 많이 먹었지만 친구들과 밖에서 더 많이 사 먹었다. 식비는 대부분 8~12달러(7000~10000원) 선에서 해결된다. 점심식사가 매일 똑같이 샌드위치여서 학교 식당을 이용해본 경험도 있다.
교통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15분 정도가 걸렸고 방법은 버스를 타고 스카 이 트레인으로 갈아타는 것이었다. 밴쿠버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구글 맵을 이용해서 이곳저곳을 쉽게 찾아다닐 수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300,000	
외식	100,000	
입장료	7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선크림, 선글라스는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짐을 너무 많이 챙겨가져가도 돌아올 때 기념품과 쇼핑한 물건들 때문에 들고 돌아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본인이 정말 필요한 옷들, 세면도구, 간식 등을 챙기면 된다. 캐나다는 110V 콘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기를 사야한다. 다이소와 같은 가게에서 2천원이면 2개를 살 수 있다. 우산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 가게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기 마련이고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또 잘 해내고 있음을 뿌듯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걱정을 안고 가는 것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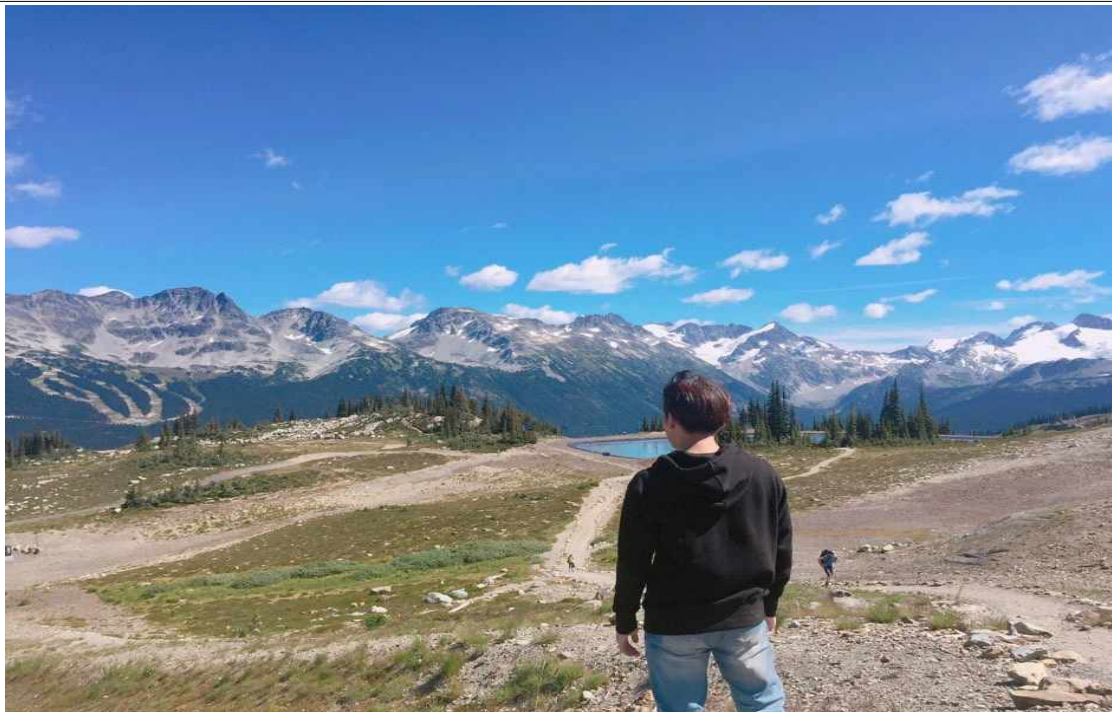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은 캐나다 밴쿠버에 오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잘 해결되어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캐나다를 출국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와야 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본 모든 풍경, 사람, 음식, 문화가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본인은 특히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갔었는데, 많은 다른 친구들은 경비도 많이 들고 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해지 못했다. 하지만 다녀온 경험으로 보아 빅토리아 아일랜드는 인생에 있어 꼭 한번 가야할 장소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건물이 아름답고 길거리에서 공연 예술을 하는 곳도 많았다.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서 세상은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왕복해서 다녀오는데 40달러(3만5천원)도 채 들지 않는다. 주말을 이용해서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귀국하고 찍은 사진



휘슬러마운틴





게스타운 - 스팀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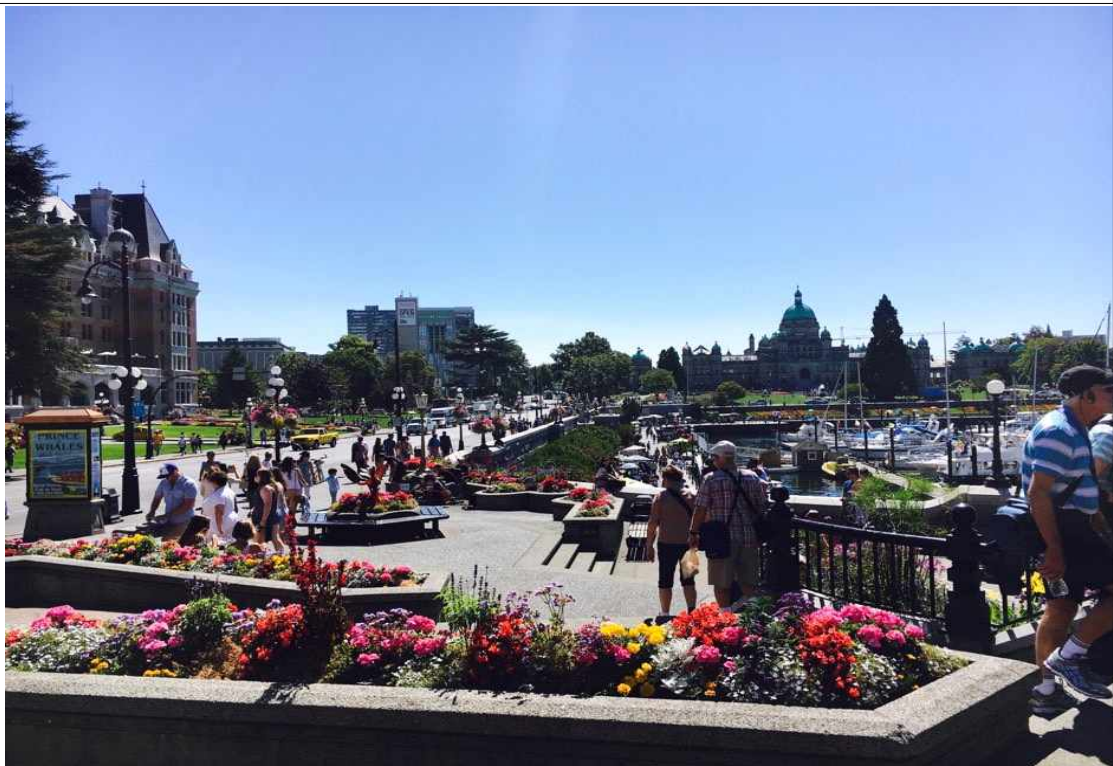


빅토리아 아일랜드 - 국회의사당





해변



빅토리아 아일랜드 - 다운타운 길거리